

다산포럼



강진감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전 경시대 교수

조선 후기 실학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가 이룩한 최대 연구 성과의 하나이다. 한국인들은 조선 후기 실학자와 실학사상이 한국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배웠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기존 실학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이루어지고 실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가.

조선 후기 실학은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가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한 학문이다. 식민주의 사학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생산한 역사학으로, 한국 민족의 열등성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식민주의 사학은 식민지 시대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도 한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1950년대 한국인들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 이승만 독재 체제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 수준은 한국

21세기 한국 사회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역사상

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못난 민족이라 자책하게 만들었다. 한국인의 이 같은 열등감의 근저에는 식민주의 사학의 영향이 작동하고 있었다.

한국 사학계가 식민주의 사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역사학계는 한국 사회가 조선 후기에 이미 스스로 자본주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의 맹아론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논리를 뒷받침해 준 것이 조선 후기 실학이었다. 1970년대는 실학의 전성기였다.

실학은 공리공담에 머물러 있던 성리학적 유교 세계관을 극복하고,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과 농민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현하는 근대적인 사회사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실학은 조선 후기부터 한국 사회가 근대 사회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고 그 동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한국 역사 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한국 사회는 근대화과 민족주의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강하였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한 역사상이다. 실학이 근대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당시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작동하였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한국 역사 속에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 준 것이다. 한국 사회는 1980년대 말에 산업화를 달성하여 당면한 근대화 진입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기존의 실학 연구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먼저 실학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실학' 개념이 기존 연구처럼 조선 후기 정약용·이익 등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학자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조선시대 유학이 지닌 속성을 나타내는 일반명사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이 민족적이고 근대 지향적이라는 것도 과도한 역사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 후기 실학 연구에 대한 비판 현상이 1990년대에 시작되고 2000년대 들어 전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21세기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근대 사회를 넘어 정보와 사회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사회로 진입하였다. 2019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선진국 그룹이 되었고, 일정한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에도 도달하였다. 또한 세계에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과거이다. 현재의 변화는 역사의 재해석을 요구한다. 21세기 달라진 한국 사회가 20세기에 형성된 조선 후기 실학사의 재구성을 요구한 것이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한국 역사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대 시작된 조선 후기 실학 연구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이 같은 요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 주는 시그널이라 생각된다.

기고



김희승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대의 표심이 사회적 관심이 쏠린 첫 번째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른바 '20대 남성 현상'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표출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청년세대 남성들이 드러내는 새로운 정체성 정치는 기존의 사회적 흐름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사회적 관심과 아울러 다양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후보자들은 청년세대 맞춤형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대의 표심에 집중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청년세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청년세대 맞춤형 공약의 일부는 청년세대를 남성고 여성으로 분리시키면서 젠더 갈등을 유발하거나, 청년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진단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캠프의 한 인사는 '20대 남성 현상'을 설명하면서 "남학생들이 군대 가기 전 술 마신다"라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실의 남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군대에 가기 위해 자원봉사와 헌혈을 통해 봉사 점수를 채워야 하는 세대이다. 참고로 헌혈은 1점으로 산정된다고 한다. 이런 처지의 남학생들에게 '술' 어쩌고 하는 진단은 분노를 촉발하는 모욕의 인사이다.

필자도 청년세대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청년세대의 분노와 기성세대의 책무

는 없다. 세상의 변화만큼 학생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최근에는 학생들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소통과 지적 교류는 더 힘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지난 2학기 강의는 무리였지만 대면 강의로 진행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마주한 학생들은 또 달라져 있었다.

사회문제 강의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토론 주제는 '20대의 코인 투자'였다. 토론에 앞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인 투자 경험의 유무를 물었을 때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투자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코인의 투기성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이 공유하고 있었다. 학생들 스스로 코인의 등락은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고 진단했다. 로또와 같은 사행성의 측면이 크지만 코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의 경제적 처지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했다. 청년세대가 향후 근로 소득이나 부동산, 주식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여건이기에 대체제로 코인을 선택했다는 주장이었다.

최근 이슈가 되는 '20대 남성 현상'은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자리를 혐오와 분노로 채워 가면서 발생하는 위기적 징후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가 된 '586세대'에게 20대 청년의 시기는 군부 독재의 폭압이 맹위를 떨치는 암흑한 시대였다. 국가 폭력의 잔인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희망의 시대였다. 청춘의 투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을 종식시키겠다는 결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나이 서른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율조림은 절망이 아닌 희망에 관한 찬가였다.

반면에 2022년의 20대에게 현재는 절망의 시대이

다.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졌다.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했던 '386세대'의 황금기는 되돌아오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희망이 사라진 자리를 청년세대의 남성들은 혐오와 분노의 양가적 감정으로 채워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현재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된 586세대의 자녀라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문제가 기성세대 자신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성세대는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설계하기에 앞서서 자식들의 문제인 20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청년세대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분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체제를 만든 기성세대의 무능과 안이함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먼저 전해야 한다. 그리고 작금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 이러한 변화가 도래할 때까지 청년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세대의 분노는 병적 징후가 아닌 희망의 징후일 수 있다. 왜냐하면 혐오와 적대는 자기 파괴적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있는 반면에 분노는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의 분노는 자신의 문제가 사회 구조의 문제를 깨우쳐 가는 과정일 수 있기에 희망의 지점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청년세대를 정치적 유훈리에 따라 혐오의 언어로 구획할 것이 아니라, 분노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분노에 대한 응답은 희망이 사라진 청년세대를 위하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열여갈 수 없더라도 희망의 싹을 키워가는 2022년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기고



한근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기와 교수

흔히 말하는 요지경(鎔池鏡)은 어린아이들의 시각적인 흥미를 돋우는 장난감의 일종이다. 흡사 작은 망원경처럼 생겼고, 렌즈를 통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렌즈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삽입되어 있어, 요지경을 회전시키면 마치 한편의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요지경의 유래는 고대 중국의 전설에서 시작됐다. 전설에 따르면 곤륜산에 서양모라는 선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요지(鎔池)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고 한다. 서양모는 아름다운 요지에 신선들을 초대해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다. 즉 요지경은 요지에서 벌어지는 현상 속 잔치를 보여 주는 거울을 뜻한다. 현실과 다른 이상의 세계인 유토피아(utopia)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지경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알 듯 말 듯 묘한 세상을 비유한 말로 쓰이기도

21세기 요지경, 메타버스(metaverse)가 온다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요지경 속 유토피아를 넘나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세계가 있다. 바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다. 이 세계에 들어온다면, 독자들도 디지털 유토피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어떤가?

가상현실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현실인 듯 현실 아닌 현실 같은 환경'으로 실체가 아닌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는 디지털 기술이다.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한 대표적 기계장치 중에는 HMD(Head Mounted Display)가 있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헬멧처럼 머리에 쓰고 HMD에 장착된 렌즈를 바라보면, 눈앞에는 어느새 실제 같은 영상들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상현실을 위한 HMD를 착용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바깥 세상과 잠시 단절된다. 그들에게는 오직 설정된 가상현실의 영상만 집중해 볼 수 있게 HMD가 제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이 가상현실에 더욱 몰입감을 선사하는 하는 것이다(정작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 도대체 무슨 영상을 보길래 몸을 저리 휘젓는지 궁금해진다).

가상현실은 이미 SF영화나 소설에서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SF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의 작품 '레디 플레이어 원'

(Ready Player One, 2018)도 그런 작품 중 하나다. 영화는 2045년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으로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는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오아시스(oasis)라고 불리는 가상 현실 세상이다.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멋진 캐릭터로 변신도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상만 하면 곧 원하는 가상현실로 탈바꿈하는 것도 쉽다. 그래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그토록 오아시스를 열망하는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금 비대면과 온라인이 더욱 확산되면서,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 온라인 공간을 마치 현실의 3차원 공간처럼 이용하는 기술)가 주목받고 있다. 가상현실은 결국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이른 시간 내 일상생활 속에 자리매김할 것이다. 앞으로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현실보다 이상과 같은 가상세계의 삶에 과도하게 집착할지 모른다.

모든 기술에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메타버스가 현실과 이상을 잇는 유토피아가 될지, 아니면 한낱 신기루가 될지는 이제 모두 우리의 손에 달렸다.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社說

한 달 앞둔 대선 남은 중요 변수는 '단일화'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후보 단일화에 많은 사람의 눈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저와 방향이 같다"라며 '합쳐서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물론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식적 입장은 '단일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박병 승부 속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윤 후보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단일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최근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윤 후보가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크게 격차를 벌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틀썩날썩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니다. 이는 선부른 자신감이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며 "지금부터라도 당장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공식 입장은 '끝까지 완주'다. 안철수 후보는 일각에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거론하는 '공동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안 후보 지지율이 최근 10%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결국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안 후보로서는 끝까지 완주해서 후시 윤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그때는 이미 존재 의미가 미약해지기 때문이다. 과연 야권 단일화는 이뤄질 수 있을까.

양강 후보 앞다퉈 호남 공약 내놓고 있지만

역대 대선에서는 호남 표심의 결집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린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현재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잇따라 호남을 찾아 지역 공약을 쏟아내며 치열한 민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는 그제 광주를 방문해 "광주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 지역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광주~영암 간 초(超)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화학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 광주 지역 7대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설 연휴 직전 광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민주화 성지인 광주에 완전히 혁신적인 새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다"며 광주·전남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 주도 추진, AI연구원 및 AI기업 종합교육센터 설립, 미래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 조성, 광주역·전남대 일대 스타트업 밸리 구축, 그린 수소 트램 시범 사업, 디지털 콘텐츠 밸리 특화사업, 5·18 정신 헌법 명문화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역 공약과 정책을 앞다퉈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지역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기존에 지자체가 추진하던 현안 사업을 구체적 대안 없이 두루뭉술하게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경우 역대 정부의 중점 공약이었음에도 여덟몇 지지부진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남은 기간 단지 표를 얻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탕 삼탕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재원 대책까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르렀다!" 1961년 4월 12일 우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1934-1968)은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48분 동안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지구 관제소에 알려 왔다. 그는 대기권을 뚫고 우주공간을 비행한 인류 최초의 우주인으로 우주 개발사에 기록됐다.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지 불과 3년6개월여 만에 이뤄낸 러시아(구 소련)의 기술적 진보이면서 본격적인 유인 우주시대의 서막을 여는 대사건이었다.

그가 우주에서 경이롭게 바라본 푸른 지구의 모습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 에게도 낯설지 않다. 국제 우주정거장이나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다양한 이미지를 영상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색이 푸를 뿐만 아니라 지구를 둘러싼 성층권 역시 푸른 빛깔을 띠고 있다. 맑은 날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푸르다. 파란 하늘은 태양 빛이 대기층을 통과할 때 산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 빛깔은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환경에서는 푸른

하늘을 보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2022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베이징은 평소 대기질이 안 좋기로 소문난 곳이다. 그런데 대회 기간 동안 베이징 하늘이 일시적으로 맑아졌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출정 연휴 기간 동안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폭죽놀이를 금지한 것은 물론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차량 운행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눈을 만들기 위해 인공 눈을 뿌린 것도 대기질 향상에

올림픽 블루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논송이가 대기 중 먼지를 안고 떨어져 대기질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두고 서방 언론들은

'올림픽 블루'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중국 내 공장들이 공장 가동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또한 잠깐 동안이나마 미세먼지가 감소했다. 이처럼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따라 성취할 수 있다. 일시적인 '올림픽 블루'는 대회가 폐막되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푸른 지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전 지구적으로 지속돼야만 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